

데이비드 에저턴, 정동욱·박민아 옮김, 『낡고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 석탄, 자전거, 콘돔으로 보는 20세기 기술사』 (휴먼사이언스, 2015), 376쪽.

[David Edgerton, *The Shock of the Old: Technology and Global History since 19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전치형†

기술사 학자 데이비드 에저턴(David Edgerton)의 2007년 저작 *The Shock of the Old*가 정동욱, 박민아 두 사람의 번역을 통해 『낡고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로 출간되었다. 8년이라는 시간차가 아쉽기는 하지만, 널리 읽힐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 꼼꼼한 번역자를 만나 한국에 소개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혼자서 읽어도 좋고, 한 장씩 나누어 학부 수업에서 다루기에도 적합하고, 과학 기술과 혁신 관련 세미나 교재로도 유용하다. 기술과 사회가 얽힌 역사가 궁금한 누구나 읽으면 좋을 책이지만, 누가 읽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

기술사 학자가 쓴 책이니 물론 과학 기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겠다. 에저턴은 학자들이 기술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그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발명, ‘기술적 변화’, ‘기술의 형성’이 기술사의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술의 “사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13). 지금까지의 기술사 서술이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의 등장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제 세계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획득하고 사용하면서 하루하루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령 에저턴은 20세기에 군사 분야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는지를 묻는 대신 “20세기에 어떤 기술들이 사람을 죽였는지를” 물음으로써 전쟁과 기술의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19). 이렇게 연구 개발에서 사용으로 시선을 돌리면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술사

† KAIST 과학 기술 정책 대학원, cjeon@kaist.edu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로 열릴 것이다.

한국의 과학 기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이 책의 중요한 독자가 될 수 있다. “국가의 발명 역량을 이처럼 강조하다 보니, 국가와 기술의 관계는 주로 발명과 혁신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기 마련”이라는 에저턴의 지적은 한국에도 잘 들어맞는다(164). “국가적 차원의 R&D의 역할에 의심을 표하기만 해도 그 분석가는 그들의 나라가 불가리아나 파라과이처럼 되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관찰은 더 잘 들어맞는다(169). 에저턴은 국가의 R&D 투자나 혁신 역량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치열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곧 생겨날 기술 혁신이 우리의 경제, 정치,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과도한 미래 지향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경계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연구와 혁신만이 아니라 기술의 모방, 교류, 확산, 변형,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의 사용이 한 국가의 과학 기술 정책의 제가 될 수 있을지 질문하게 된다.

기술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내는 언론인, 논평가, 미래학 연구자들도 이 책에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오래된 기술, 비첨단 기술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에저턴은 우리가 신기술, 첨단 기술을 기대하며 제시하는 미래상 자체가 상당히 낡고 진부한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등장하는 기술에 깜짝 놀라면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반면 아직도 중요하게 쓰이는 과거의 기술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에저턴은 우리의 심각한 기술 건망증을 지적한다. “정보 기술을 생각할 때면 우편 시스템, 전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존재를 잊는다. 온라인 쇼핑에 경탄하는 동안 통신 판매 카탈로그는 실종된다. 유전 공학과 그것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얘기는 마치 이전까지는 동물이나 식물을 변화시키는 다른 어떤 수단도 없었던 것처럼 논의된다. 식량 공급을 증대하는 다른 수단은 말할 것도 없다”(19). 기술과 미래에 대한 논의가 변화, 혁신, 혁명과 같은 키워드로 가득 차 있을 때 에저턴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술관과 역사관은 더욱 소중하다.

마지막으로, 현직 엔지니어나 공과 대학 학생들도 이 책을 통해 ‘혁신’과 ‘사용’이라는 양쪽 관점에서 기술과 공학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에저턴은 혁신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항상 “창조자, 설계자, 연구자”로 묘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 다수는 언제나 물건과 공정을 작동시키고 유지하는 일을 주로 해 왔다. 즉 발

명이나 개발이 아니라 물건의 사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17-18). 어떤 독자들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정체성에 대한 에저턴의 지적이 못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에저턴이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창조적, 혁신적 연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좁은 혁신 관념을 수정하고 확장하여 더 다양하고 탄탄한 엔지니어링 활동의 가능성을 열자는 것이다. 에저턴은 “케케묵은 미래 지향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도 우리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혁신을 이를 자유를 만끽해야 한다”고 말한다(312). 여기서 혁신은 사용과 연결되고 기술은 사회와 결합한다.

이 책은 그 내용과 번역의 질 양쪽 측면에서 휴먼 사이언스가 출판하는 STS 컬렉션의 첫 번역서로서 손색이 없다. 번역문은 원저의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읽기에 어려움이 없고, 곳곳에 덧붙여 놓은 역자 주석도 유용하다. 굳이 한 가지 지적하자면, “낡고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라는 제목은 “The Shock of the Old(오래된 것들의 충격)”라는 원제목만큼 매력적이지는 못하다. 우선 “낡고 오래된”이라는 구절은 애매한 반복처럼 보인다. 또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낡은 기술은 아니라는 견해가 이 책에 담겨 있음을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 “석탄, 자전거, 콘돔으로 보는 20세기 기술사”라는 부제도 이 책의 이론적인 관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쉽다. 더 넓은 독자층을 겨냥한 선택이겠지만, “Significance”(중요성), “Time”(시간), “Production”(생산), “Maintenance”(정비), “Nations”(국가), “War”(전쟁), “Killing”(살생), “Invention”(발명) 등 간결하게 붙은 각 장의 원제목을 각각 “가장 중요한 것”, “낡은 것과 새로운 것”, “황금시대의 작은 기술들”, “정비사의 탄생”, “우리나라의 기술”, “20세기 전쟁의 비극”, “살생의 시대”, “발명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 등 더 친절한 문구로 바꾼 것도 그 효과를 짐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사소한 불평을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책이 더 많이 팔리고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